

# 제11차 국제돼지질병 수의학술대회 (IPVS)참석 소고

- 스위스, 로잔, 1990.7.1~7.5 -

全 茂 炯\*

제11차 국제 돼지질병 수의학술대회(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Congress; IPVS)는 1990년 7월 1일~7월 5일에 스위스의 국제적 휴양도시 로잔(Lausanne)에 있는 Palais de Beaulieu(Beaulieu궁)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IPVS는 지금부터 21년전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의 수의학 전문가들이 양돈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모인 집담회가 효시가 되었고 그뒤 유럽지역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지금은 매 2년마다 세계의 양돈질병관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정보를 교환하고 친분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여 이 분야의 학문발전에 공헌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IPVS는 단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로는 그 규모나 발표문의 질적, 양적면에서 가장 저명한 대회라고 학회측에서 공언하고 있었다.

이번 학회에는 44개국에서 1,500여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사람으로는 본인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수의대 박응복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대 김봉환 교수, 마이엘화학(주)의 예재길 박사, 유전자원회사(충북 진천소재)의 이원형

생산과장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수의대의 주한수 교수와 김현수 박사가 참석하여 학술발표, 정보교환 및 주요 인사접촉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 개최장소

주최국인 스위스는 총면적 41,293km<sup>2</sup>로 남한의 반보다 더 작으며 23개의 칸톤(州)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인구는 6,668,500명이다. 외교적으로는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은 농목축업, 섬유산업, 화공업, 전자기계 산업 및 시계·보석가공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을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위스 사람들은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그들의 희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EC통합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담을 찬성하나 정치적으로는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이 나라는 서독(346km), 프랑스(572km), 이태리(734km), 오스트리아(165km) 및 리히텐슈타인(41km)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태리와의 접경지역이 734km로 가장 길다. 이와같은 지정학적 및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독일어

\*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65%), 프랑스어(18%), 이탈리아어(10%) 및 레토로만어(1%)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에서도 영어를 포함한 4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로잔은 스위스의 서부 프랑스 국경지역에 있는 레만(Leman)호수변에 위치한 휴양도시로 국제올림픽사무국이 상주해 있는 곳으로 88올림픽 개최가 1981년 10월 서독 바덴바덴에서 결정된 후 서울 올림픽과 연관된 회의가 Beaulieu궁에서 수차례 개최된 바 있어서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며 년평균 기온은 9.5℃로써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하고 여름은 27~28℃로 휴양하기에 적합한 기후이며 레만호 주위 비탈진 언덕에는 포도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로잔은 스위스의 23개주의 하나인 Vaud 칸톤(州)의 수도로서 인구는 시내가 127,000명이고, 근교를 합하면 26만명으로 쥘리히, 제네바, 바젤, 베른 다음으로 큰 도시이고 근접한 제네바와는 6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연중 관광객과 휴양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 학술대회

첫날인 7월 1일(일) 오후 3시부터 학회장소인 Beaulieu궁 1층 로비에서 등록과 학회관련 안내문 및 출판물의 배부가 있었고,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로잔시장 Yvette Jaggi여사의 환영사가 있었는데 통역없이 프랑스어로 일관해 버리는 통해 환영한다는 뜻으로 잡을 수 있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 불만족스러웠다. 이와같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겪는 불편은 회의장에서 뿐만 아니라 로잔 시내에서도 수차례 체험했으며 영어를 쓰는 다른 나라대표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환영식에 이어서 포도주, 비스킷, 치즈를 주식으로 한 환영연이 있었는데 너무나 겸소한 리셉션파티에서 잘사는 나라 사람들 특유의 타산

적인 인색함을 느꼈으나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에 주홍이 무르익었고 옛지기를 만나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는다고 만국어가 떠들석한 가운데 연회는 끝났다.

7월 2일(월)은 개회식이 있고 학술발표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스위스 민속악단 "Appenzell folk musikalder"의 고적대 광파레와 함께 개회식이 시작되었다(그림). 공식 환영인사는 IPVS회장 Herman Keller, 스위스 연방정부 수의국장 Peter Gafner, Vaud 칸톤 정부 의장 Philippe Pidoux, 스위스 수의사회장 Jean-Pierre Siegfried가 하였고 이어서 스위스 민속음악 연주가 10분정도 이어지면서 행사는 끝났고, 심포지움과 논문발표가 각 회의장 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는 표 1의 학술대회 진행계획표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되었다.

학회 발표논문은 총 500여편으로써 그중 240여편은 구두발표로 그리고 260여편은 포스타로 발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본인은 프로그램중 역학, 바이러스성 감염병학, 오제스키병, 면역학, 바이러스성질병 진단학 및 병리학 부문 학술발표장에 주로 참가하였다. 본인과 안수환 박사의 공동발표 연계인 "국내 이환자돈에서 분리한 Aujeszky's disease virus의 생물학적 성상에 관한 연구"는 포스타 발표장의 group 16의 Aujeszky's A군에 배정되어 있어서 회의 첫날 정해



▲ 본회의장에서 거행된 개회식 장면.

진 판에 준비해 간 자료를 부차하였는데 그때 출국하기전 여러가지 수속과 여비신청 등으로 바쁘게 허둥대다다 포스타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한데 대해 후회하였다. 왜냐하면 본인 연재 바로 옆에 화란 가축위생연구소 바이러스연구실에서 온 Kimman박사를 위시하여 미국 및 서독에서 온 학자들의 포스타가 걸려 있었는데 그들의 것은 예술작품처럼 활자, 디자인, 사진, 색깔 등이 너무 훌륭해서 본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뤘기 때문이었다. 나중 그사람들에게 물어서 안 일이지만 그들의 연구소에는 컴퓨터그래픽과 사진기술을 응용하여 포스터 제작을 전문으로 해주는 요원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포스타 발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도 이와같은 포스타자료 제작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포스타 발표자는 학회기간중 프로그램에 따라 도합 3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포스타에 정위치해 있으며 질문과 토의에 응해야 하므로 구두연재

보다 더 깊고 진지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고 생각되었다. 본인의 경우는 헝가리, 미국, 화란 및 대만에서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왔었다.

학회조직위에서 출간한 Proceedings에 의하면 모두 48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주제별 논문편수는 집계해 보면 표 2와 같다.

각 질병 또는 주제와 연관된 논문의 요약을 원하거나 Proceedings을 참고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기꺼이 봉사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의 발표논문 편수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관심의 초점이 되는 질병은 세균성 질병에는 Actinobacillus(Hemophilus) pleuropneumonia 감염에 인한 흉막폐염, Pasteurella multocida와 Bordetella bronchiseptica에 기인한 위축성 비염(AR) 그리고 대장균증이 있고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Aujeszky's disease와 설사증바이러스(예, TGE 등)이라고 알 수 있었다.

표 1. 학술대회진행 프로그램

		Room 280	Room 240	Room 340	Room 361	Room 364
Monday July 2	0930-1030	Opening Session				
	1100-1200	1-Genetics & Ethol. Symposium : Biotechnology	2-Pleuropneumonia I	3-S. suis I	4-Prolif. Enteropathies	5-Virology/Epidem. I
	1400-1515		6-Pleuropneumonia II	7-S. suis II	8-Dysentery I	9-Virology/Epidem. II
	1545-1700		10-Atroph. Rhinitis I	11-Urogen. Infect.	12-Dysentery II	13-Virology/Infect.
1700-1800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Tuesday July 3	0830-1000	14-Health control	15-E. coli I	16-Nutrition I	17-Pleuropneumonia III	18-Aujeszky I
	1030-1200	19-Environ. Factors I	20-E. coli II	21-Nutrition II	22-Pleuropneumonia IV	23-Aujeszky II
	1300-1400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1400-1515	Symposiumk:	24-Artif. Insemination	25-Nutrition III	26-Atroph. Rhinitis II	27-Immunology
1545-1700	Epidemiology	28-Estrus & Fertility	29-Food Additives I	30-Atroph. Rhinitis III	31-Virology/immunology	
Wednesday July 4	0830-1000	32-Food Addit. II	33-Parasit. Diseases I	34-Manag. & Prod. I	35-Pleuropneumonia V	36-Endocrinology
	1030-1200	37-Med. feeds	38-Virology/Diagnost.	39-Manag. & Prod. II	40-Other Respirat. Dis.	41-Reprod. Diseases
	1300-1400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POSTERS(presentation by authors)		
	1400-1515	Symposium:	42-Aujeszky III	43-Manag. & Prod. III	44-Enzoot. Pneumonia I	45-Pregnancy & Partur.
1545-1700	Feed Additives	46-Virology/Pathology	47-Environ. Fact. II	48-Enzoot. Pneumonia II	49-Parasit. Diseases II	
Thursday July 5	0900-1030	50-E. coli III	51-Atroph. Rhinitis IV	52-Bact. Miscellan.	53-Pathology	54-Parasit. Diseases III
	110-1300	General Assembly				

또한 이들 질병의 병원체의 정상규명, 진단 및 예방에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응용하여 연구한 논문수가 현저히 많은 것은 오늘날 돼지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제반 가축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자생화학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주는 점이라 생각했다.

바이러스성 질병중 Aujeszky's disease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제스키병 박멸 1차 국제 심포지움(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radication of Pseudorabies; Aujeszky's disease virus)이 조직되어 1991년 5월 19일~5월 22일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수의대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 질병에 대한 세계의 전문가들이 미네소타 대학에 모여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해

결방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 친교활동

꽤 짜여진 프로그램과 참석인원이 많았던 관계로 꼭 필요한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커피부레이크나 점심시간을 최대한 허용해야 하니 설 시간이 없었고,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각국 수의제약회사들의 전시장부스를 찾아 볼 여유도 쉽게 생기지 않았다. 학회조직위 측에서는 참석자의 친교를 위해 환영연, Congress dinner, Gala dinner, 학회후 관광 및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다.

정확성과 신용을 자산으로 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스위스인의 절도있고

표 2. 주제별 발표 논문 편수

주	제	논문편수
<u>RESPIRATORY BACTERIAL DISEASES</u>		<u>112</u>
	Pleuropneumonia	48
	Atrophic Rhinitis	31
	Enzootic Pneumonia	10
	Other Bacterial Respiratory Diseases	23
<u>ENTERIC BACTERIAL DISEASES</u>		<u>53</u>
	Proliferative Enteropathies	4
	Dysentery	21
	E. coli	24
	Other Enteric Bacterial Diseases	4
<u>OTHER BACTERIAL DISEASES</u>		<u>32</u>
<u>VIRAL DISEASES</u>		<u>83</u>
<u>PATHOLOGY, IMMUNOLOGY AND PHYSIOLOGY</u>		<u>28</u>
<u>PARASITIC DISEASES</u>		<u>23</u>
<u>NUTRITION AND FEED ADDITIVES</u>		<u>40</u>
<u>MANAGEMENT AND PRODUCTION</u>		<u>60</u>
<u>REPRODUCTION</u>		<u>57</u>

검소한 생활태도와 비싼 물가 등이 혼합되어 인색하게만 느껴지던 이곳 인심이 Congress dinner를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

Congress dinner는 7월 2일(월) 저녁 8:00~11:30에 레만호(일명 제네바호)의 유람선상 디너로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로 베풀어 졌다.

레만호는 서부 유럽 알프스지역의 최대 호수로 넓이가 582km<sup>2</sup>되고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으며 호수가운데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선이 있다. 스위스 쪽으로는 제네바, 로잔, 몽트루 등이 있어 여러 국제연합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과 휴양지로 유명하며 특히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명작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주인공 미국군장교 프레데릭과 영국군 간호원 케더린의 비련의 마지막 씬의 무대가 되기도 한 지역이다.

참석자들은 Lausanne-ouchy 부두에서 3대의 대형유람선에 승선하여 풀서비스로 포도주와 디너를 들면서 레만호를 한바퀴 돌아오면서 서로 간에 교분을 돈독히 하게 되어 있었다. 이곳의 비싼 물가를 감안할때 일인당 경비가 이백불은 될것 같이 생각되었다.

조용한 호수면을 하얀 유람선이 미끄러져 가면서 호수의 북편 언덕위에 즐비한 포도밭과 남안의 산악과 계곡, 호반에 노니는 백조와 물새 위에 비치는 석양과 일몰의 장관, 호수가에 서 있는 별장과 빨간지붕의 마을들 그리고 아름다

운 고성을 감상하면서 포도주와 비프스테이크 그리고 만국의 언어와 노래속에서 Congress dinner는 흥겨워 갔고 그 가운데 나라와 언어 그리고 풍습을 초월한 인정과 친분은 두터워져 갔다.

## 맺는말

IPVS Congress는 돼지의 질병, 유전학, 번식학 및 양돈관리기술을 비롯하여 양돈업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최신정보를 발표, 토의하며 전문가들 상호간에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회의로서 그 규모나 발표되는 논문의 양과 질을 감안해 볼 때 매우 권위 있는 학회중의 하나라고 인정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양돈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참석자들의 높은 열정과 논문의 질적 및 양적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이 학술대회는 더 빠른 템포로 발전·신장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차기 학회는 1992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대회는 1994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 위한 유치운동이 있었다. 차기 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들이 참가하여 돼지질병의 진단과 예방, 양돈의 경영관리 등에 유익한 국제정보를 입수하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